

11일 Market Index			
↑ 코스피	7822.24	↓ 코스닥	1207.34
	(+324.24)		(-0.38)
↑ 금리 (미국 3년)	3.598	↑ 환율 (원/달러)	1472.40
	(+0.029)		(+0.70)

2차 고유가 지원금  
국민 70%에  
최대 25만원 지급  
02



## “제도화 없으면 결렬” vs “1인당 5.4억 제안”

(노조)

(사측 추산)

## 시총 7000조 돌파 8000피도 다 왔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장사들의 전체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7000조원을 넘어섰다. 지수는 ‘팔천피(코스피 8000)’까지 불과 177.76포인트를 남겨두게 됐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국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약 708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피(유가증권시장)가 6404조원, 코스닥시장은 673조원이었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이 상장된 코넥스시장의 약 4조원까지 더한 것이다. 국내 주식시장 규모는 지난달 27일 6000조원을 넘어선 후 8거래일 만에 1000조원이 불었다. 1년 새 3배 가까이 커졌다. 이는 또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따진 작년 우리나라 경제 규모 2663조원의 약 2.66배에 달한다.

시가총액이 이렇듯 불어나는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종목이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반도체 덕분에 코스피지수는 4.32% 오른 7822.24로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8거래일 만에 시총 1000조 뛰어 삼성·SK 등 반도체주 급등 영향 코스피 4.32% 오른 7822.24 마감

특히 이날 삼성전자는 6.33% 오른 28만5500원, SK하이닉스는 11.51% 급등한 188만원에 마감하며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두 종목의 시가총액 합계는 약 3000조원으로 커졌다. 두 종목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47%, 전체 주식시장에서 비율은 약 42%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호황에 따라 장밋빛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현대차증권은 반도체 부문의 장기 이익 성장과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을 고려할 때 코스피가 단기間に 1만2000포인트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글로벌 투자는 JP모건 또한 코스피 목표치를 1만 선으로 상향 조정했다. JP모건은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이 수분기에 걸친 가격-물량 계약에 묶여 있는 만큼 가격 상승 모멘텀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 노무라증권 등도 코스피 전망을 8000~8500으로 높여 잡았다.

다만 주가가 단기에 급등하면서 ‘FOMO(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심리’에 빛을 내서 뛰어들거나 아예 너무 과열됐다고 보고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규모가 크게 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은 136조9890억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빛투(빛내서 투자)’를 뜻하는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 7일 35조5072억원에 달한다. 신용융자 잔고는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주식을 산 뒤 갚지 않은 금액이다.



metro

### 삼성전자 노사 막판협상

노조 “영업익 15% 상한 폐지를 회사, 전향적 변화 있다면 ‘고민’”  
사측 “상한폐지 받아들일 수 없어”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여부를 가를 마지막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노조는 성과급 제도화가 없으면 합의는 없을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11일 세종 정부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사후조정 절차를 시작했다. 지난 3월 27일 교섭 중단 이후 45일 만에 공식 협상 테이블이 다시 열렸다. 사후조정은 노사 쌍방 동의로 진행되는 추가 중재 절차로 조정안이 도출되면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절차는 12일까지 이틀간 계속된다.

협상장 입장에 앞서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지지부(삼성전자 최대 노조)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영업이익 15%의 상한 폐지와 제도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며 “회사가 제도화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오늘이라도 조정이 결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HBM(고대역폭메모리)도 원팀으로 협업하면 보상을 준다 했지만 개발 이후 흠여졌다”며 “명문화라는 말을 믿지 못하겠



11일 삼성전자 노조 대표로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지지부 최승호 위원장 등이 사후조정 절차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노위 조정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이틀동안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재개한다. /뉴시스

고 제도화 관점에서만 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회사의 전향적인 변화가 있다면 고민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사측은 “사후조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사측과 노조는 단순 금액이 아니라 향후 보상 기준을 고정할지를 둘러싼 충돌로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사측은 국내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메모리사업부 직원에게 경쟁사 이상을 보장하는 특별 포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 사측 제안 기준으로 메모리사업부 직원 1인당 평균 5억400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성과급 상한 폐지를 제도화하는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명문화하고 상한을 영구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준으로 하면 DS부문 임직원 1인당 6억 원에 가까운 성과급 규모다.

노조 내부 이견도 협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성과급 논의가 디바이스솔

루션(DS)부문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소외된 디바이스경험(DX)부문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 강경 투쟁의 핵심인 DS부문 내부에서도 실질적 타격을 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DS부문 한 직원은 (메트로경제)에 “성과급이란 결국 성과에 따른 보상인데, 실적을 올린 메모리 부문 성과급만 보장해준다면 합의하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규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생보사, 1분기 보험 해약 5조... 증시로 ‘머니무브’

생보 빅3, 해약환급금 6882억 증가  
저축성보험 증가비율 77.5% 달해  
보험뿐 “해지율 상승시 CSM 감소”

증시 랠리 속에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 계약 해지가 이어지고 있다. 저축보험을 깨서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 등 생보사 빅3의 올해 1분기 해약환급금이 5조원에 육박했다. 대부분 저축성보험 해약으로 생보사의 기존 계약 유지와 해지율 가정 관리가 중요해졌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 등 생보 빅3의 올해 1분기 해약환급금은 4조8985억원으로 전년 동기 4조2103억원보다 6882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16.3%다.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때 보험사가 돌려주는 금액이다. 해약환급금 규모가 커졌다는 것은 중도 해지에 따른 보험사의 환급금 지급 규모가 확대됐다는 의미다.



Chat GPT가 생성한 저축성보험 해약 이미지.

주목할 대목은 저축성보험이다. 생보 빅3의 저축성보험 해약환급금은 지난해 1분기 2조2953억원에서 올해 1분기 2조8288억원으로 5335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23.2%다. 전체 해약환급금 증가분 6882억원 가운데 저축성보험 증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77.5%에 달한다. 전체 해약환급금 중 저축성보험 비중도 같은 기간 54.5%에서 57.7%로 높아졌다.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도 늘었지만 증가 속도는 저축성보험에 미치지 못했다. 생보 빅3의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은 지난해 1분기 1조9150억원에서 올해

1분기 2조697억원으로 1547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약 8.1%다.

업계에서는 저축성보험 해약 증가를 최근 자산시장 흐름과 무관하지 않은 현상으로 보고 있다. 코스피가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예·적금뿐 아니라 보험계약까지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저축성보험은 보장성보험보다 현금성·저축성 성격이 강해 자산시장 상승 국면에서 해약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생보사 입장에서는 저축성보험 해약 증가가 단순한 환급금 지급 확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부담이다. 국제회계기준(IFRS17) 체제에서 생보사의 핵심 이익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은 신계약확보뿐 아니라 기존 계약의 유지율과 해지율 가정에도 영향을 받는다. 실제 해지 흐름이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 계리적 가정 조정과 미래이익 인식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보험연구원도 올해 보험산업의 주요

변수로 계리적 가정 관리를 꼽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2026년 보험산업 전망”에서 “해지율 상승 시 생명보험회사의 CSM이 평균 11%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CSM은 보험사가 보유 계약에서 장래에 인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실현 이익이다. 해지율이 예상보다 높아지면 향후 인식할 수 있는 이익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은 국내 생보시장을 대표하는 대형사라는 점에서 이번 흐름은 업권 전반의 저축성보험 이탈 압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증시 활황에 따른 투자수요가 저축성보험 해약에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보험 해약을 모두 머니무브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물가와 생활비 부담, 대출 상환 등 다양한 요인이 함께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해약 사유를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 메트로 한줄뉴스



▲유정복 “박찬대, 지방채 없이 2400억 2차추경은 거짓말” /사진 뉴시스  
▲與 김용남 “세월호 발언, 유가족에 사죄드려...尹 캠프 활동도 인생의 오점”

▲한동훈 선대위 “기자 낙상 외면? 허위사실”... 법적 대응 경고  
▲박형준, 단식농성 정이한 찾아... “토론회 참여 긍정적”

▲이장우 “민선8기 확충 인프라 바탕 문화예술 전폭 지원”  
▲천호성 “학력 넘어 모두가 실력 키우는 수업 혁신 추진”